리버풀, 블록체인 기술 활용해 기후 친화적 도시 조성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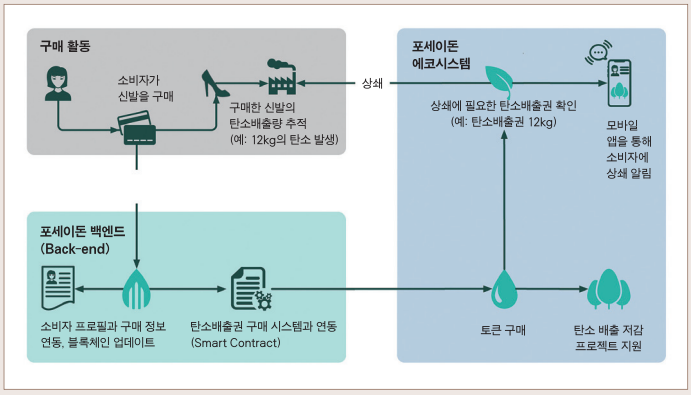
https://liverpoolexpress.co.uk/liverpool-bids-to-be-first-climate-positive-city-by-end-of-2020/

https://poseidon.eco/

리버풀이 2020년 세계 최초의 기후긍정도시(Climate-Positive City)를 목표로 삼은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도시 기후변화의 영향 완화를 시도한다. 최근 시의회는 비영리재단 포세이돈(Poseidon Foundation)과 블록체인 기반의 기후변화 영향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포세이돈 재단의 블록체인 플랫폼은 먼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발생하는 탄소배출량(carbon footprint)을 추적한다. 그리고 소비자의 지불 비용의 일정 부분을 토큰화된 탄소배출권 구매에 사용하도록 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포세이돈 재단은 블록체인 기술을 탄소배출권과 연계하여 거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거래에 필요한 과정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톤(ton) 단위로 거래되던 탄소배출권을 일상의 소액 결제 수단과 결부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개인과 기업 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대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히기도 했다.

리버풀의 조 앤더슨(Joe Anderson) 시장은 "현재 시가 도로의 조명, 세인트조지 홀(St. George's Hall)과 에코아레나(Eco Arena), 시 보유 차량 등 공공서비스의 유지와 제공을 위해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면서, "2030년까지 기후 영향을 40%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포세이돈 재단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탄소배출량 상쇄 시스템

자료: Poseidon Foundation(2018), Carbon on Blockchain. p.15.(https://poseidon.eco/assets/documents/Poseidon-White-Paper.pdf)